

한일 유학생들의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나타난 사회문화적 특성 연구

정근하*

(e-mail : wrg3141@naver.com)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한 1,2차 조사결과와 논의 |
| 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 3.1. 일본인 유학생들의 조사결과 |
| 2.1. 연구방법 | 3.2. 한국인 유학생들의 조사결과 |
| 2.2. 선행연구 | 3.3. 한일 양국 유학생들의 사회문화적 특성 분석 |
| | 4. 나가기 |

키워드 : 필리핀 語学研修(English training in the Philippines), 留学(studying abroad), 内部円国家(inner circle(USA, ENG, CA, and AU)), 虚礼虚飾(ostentation), 衛生意識(awareness of hygiene)

1. 들어가기

한일 양국 국민들이 선호하는 유학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상위 9개 국가들 중 6개 국가가 영어사용 국가였고, 일본의 경우 또한 상위 10개 국가들 중 5개 국가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집계되었다. 특이할 사실은 필리핀의 경우 양국 국민들이 ‘위험한 곳’,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크게 배울 것이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양국의 선호 유학지로서 상위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이처럼 왕래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태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 계명대학교 계명인문역량강화사업단, 초빙조교수, 사회학

<표 1> 한일 양국의 선호 유학지

Year	USA	CHN	UK	AUS	JAP	CAN	NZL	PHL	Others	Total
2015	68,105	62,923	13,002	14,303	16,374	10,964	3,097	1,004	24,924	214,696
2016	63,710	66,672	11,885	16,251	15,279	10,889	4,051	3,772	35,171	223,908

Year	USA	CAN	AUS	UK	CHN	KOR	TPE	THA	GER	PHL	Others	Total
2014	18,769	7,373	7,276	6,864	4,765	5,533	2,974	2,768	2,768	2,081	20,062	81,219
2015	18,676	8,189	8,080	6,281	5,072	4,657	3,487	3,183	2,822	2,692	21,317	84,456
2016	20,159	8,875	9,472	5,827	5,782	6,457	4,237	4,271	2,882	3,212	25,467	96,641

출처: 교육부(2016), “2016년도 국외 한국인 유학생 통계”(11/4).
 文部科学省(2017), “「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及び「日本人の海外留学者数」等について”(12/27).

“개발도상국, 위험한 곳, 배울 것이 별로 없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필리핀에 많은 한일 유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와 있지만, 양국 유학생들은 결국 필리핀 어학연수는 3개월 미만이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양국 유학생들의 이 같은 공통인식의 배면에 작용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2.1. 연구방법

2016년 1월 연구자는 필리핀 세부(Cebu)의 W어학원(16.1.5~16.7.12)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하여, 그곳에서 우연히 입수한 『Cebu pot¹⁾』라는 무료잡지를 통해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한 한일 양국 유학생들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심히 관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연구자는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의 I어학원(16.7.20~16.12.22), 미국 LA의 M어덜트 스쿨(16.12.26~17.2.24), 필리핀 마닐라(Manilla)의 G어학원(17.2.26~17.6.1)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며 『Cebu pot』 조사를 보완하는 연구를 지속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인 『Cebu pot』를 활용하는 연구방법을 택했

1) 세부섬 No. 1 종합정보 사이트, <http://www.cebupot.com/> “セブ島No.1 総合情報サイト”. 모든 기사들은 일본어와 영어로 같이 페이지에 같이 병행하여 소개되고 있다.

다. 그 이유는 필리핀에서 영업 중인 대부분의 어학원들이 유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현지인들과 유리된 외딴 곳에 위치해 있거나, 도심에 위치한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개인 자격의 사회조사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Cebu pot』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무료 잡지로, 여기에는 일본인 상점·관광지·어학원 소개를 비롯한 특집, 필리핀에서 알아둬야 할 상식 등이 게재되고 있으며, 일본인 관광객들과 현지인을 상대로 두 달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다. 특히 2016년 1/2월호 제57호의 특집 기사에는 세부에 위치한 16곳의 어학원을 대상으로 연수중인 일본인 유학생 18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분석하여 기사화 했다. 설문기간은 2015년 10월~12월 약 두 달간, 조사방법은 직접 의견을 기록하는 방식이었고 연구 대상자의 속성은 <표 2>와 같았다

<표 2> 2차 자료 『Cebu pot』의 설문조사에 응한 일본인 정보(필자 재구성)

연령	10대	20대	30대	40~50대	60대	무응답	총계
수	15명	99명	49명	2명	2명	2명	189명
성별	남	여					
수	109명	80명					
직업	대학생	취준생	독립준비	회사원	경영자	그 외, 불명	
수	36명	36명	9명	59명	6명	43명	

연구자는 『Cebu pot』의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질문지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Cebu pot』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필리핀 어학연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정보라기보다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목적의 조사로,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NG Point(No Good point는 ‘Cebu pot’가 사용한 단어로 그대로 차용함) 등의 빈도조사가 전혀 소개되지 않은 채 NG Point만 나열해 놓아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양국 유학생들에게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일본인 연구대상자는 총 35명(여: 22명, 남: 13명)이었고, 한국인 대상자는 총 27명(여:10, 남:17)이었다. 이 조사는 세부(Cebu)의 W 어학원 학생들과 어학원 부근에 위치한 헬스장(Co...:한국인 경영)에 설문지를 2주간 비치하여 회수하였고, 밴쿠버 I어학원, 마닐라(Manilla)의 ‘G어학원’에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그룹 스터디와 토론수업에서 연구자의 질문을 이용하여 수업 자체를 인터뷰화 하였고, 식사시간과 휴일을 이용하여 인터뷰

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3>은 연구자가 수집한 연구 대상자들의 속성표이며, 본 연구는 2차 자료 『Cebu pot』가 간과한 내용들을 심층 인터뷰를 가미하여 보완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는 필리핀이라는 제3국에서의 양국 문화를 비교한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연구대상의 범위를 한일 유학생만으로 제한한 이유는 어학원 재학생들의 국적 비율이 양국 유학생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이유와 개인적인 연구이력 즉 일본의 사회문제가 한국에서 반드시 재연이 된다는 연구자의 결론으로부터 양국의 사회현상에 관심을 두고 관찰하고 있는 연구이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필리핀, 캐나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조사대상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총계
한국(남)	(2명/0명)	(4/4)	(2/2)	(3/0)	(11/6)	(필/캐) 한국인: (15/12) 일본인: (15/20) 총: 62명
한국(여)	-	(2/4)	(2/2)	(0/0)	(4/6)	
일본(남)	(0명/1명)	(4/7)	(0/0)	(1/0)	(5/8)	
일본(여)	(0명/1명)	(9/11)	(0/0)	(1/0)	(10/12)	
직업	고교생	대학생	취준생	회사원	자영업	
한국	(2명/0명)	(5/6)	(5/6)	(3/0)	(0/0)	
일본	(0명/2명)	(4/7)	(12/8)	(1/0)	(1/0)	

2.2. 선행연구

인터넷의 등장, 스마트 폰의 대중화, 600Km/h로 달리는 고속전철 개발 등과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들의 등장은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제는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조차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가 점점 1일 생활권이 되어가면서 세계는 공통된 문화를 갖게 될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각국의 내면화된 문화습성이 있다는 사실은 문화해석학 부문에서 논의가 분분한 “자유지의론”과 “문화결정론”의 입장 중 문화결정론을 취하게 된다.

2017년을 살아가는 한일 양국 유학생들의 행동에서 100년 혹은 훨씬 오래전의 전통적 문화습성이 제3국의 유학지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문화가 개인에 의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 각국의 문화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문화체계²⁾에서 문화습성들이 결정되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일 양국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전통적 문화습성과 현지 문화가

2) Leslie A. White(1949) “The Science of Culture: A Study of Man and Civilization”: Grove Press. p.229.

충돌할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확인한 연구로 기존의 어학연수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과는 다른 연구임을 밝힌다³⁾.

2.2.1. 일본인의 전통 문화 고찰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 1887-1948)는 『국화와 칼(번역본)』에서 일본인들의 생활태도와 일본인의 일생이 ‘규범, 규칙, 법에 따라 이행되는 민족’임을 모든 장에 걸쳐서 주장하였다(이형철 외, 2015, pp.325-326.).

(1) 일본인은 미리 계획되고 진로가 정해진 생활양식에서만 안심을 얻을 수 있으며, 예견하지 못한 일에는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p.40.)

(2) 그들은 상전(다이묘)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법도를 어긴 것이어서, 이점은 도저히 간과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다. 동기의 정당함은 법을 어긴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중략...그들은 처형에 즈음하여 결국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것이 바로 법이 자 질서였기 때문이다.(p.78.)

(3) 일본인은 다른 어떤 주권국보다도 그 행동이 끝에서 끝까지, 마치 지도처럼 정밀하게 미리 규정되어 있어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정해진 그러한 세계 속에서 생활하도록 조건지워져 왔다. 법과 질서가 무력에 의해 유지된 200년간, 일본인은 이 면밀히 기획된 계층제도를 안전과 보증으로 동일시하도록 훈련되었다. 그들은 이미 아는 영역에 머무는 한, 이미 아는 의무를 이행하는 한, 그들의 세계를 신뢰할 수가 있었다....중략... 사람들은 지도⁴⁾를 신뢰했다. 그리고 그 지도에 표시된 길을 따를 때에만 안전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든가 혹은 그것에 반항하는 대신, 그것을 지키는데 있어서 자신의 용기와 고결함을 드러내었다.(pp.81-82.)

(4) 일본인이 상세한 행동의 지도를 좋아하고 신뢰한 것에는 하나의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지도는 사람이 규칙에 따르는 한 반드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도쿠가와 막부가 붕괴되었을 때에도, 국민 중에는 이 지도를 없애 버리자고 의견을 제시한 그룹은 없었다.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은 일본에선 일어나지 않았다.(pp.84-85.)

(5) 일본인의 입장에서서는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그들의 최고 의무, 즉 고온(皇恩)을 갚는 일이다...중략...일본인들은 비록 그것이 행복의 명령이긴 했지만, 그

3) 현재까지 필리핀 어학연수 관련 연구들은 연수 이후 영어실력 향상 여부를 비교한 연구가 주류로 본 연구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연구임.

4) ‘지도(map)’란 각기 알맞은 신분을 규정한 정신적 지도, 도덕적인 규범의 지도이며, 행동 규범이다.

명령을 내린 것은 천황이었다고 말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었다. 패전에 있어서도 최고의 법은 여전히 주(忠)이었다.(pp.143-145.)

(6) 늘 쓰여지는 훈계의 말은 ‘더럽다’는 말이다. 일본 집은 정연하게 정돈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어린아이는 그것을 존중하도록 배운다.(p.276.)

(7) 아이들은 무엇이든 말하고 싶은 말을 맘대로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그들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전부 말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누구에게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또 자기 자랑도 하지 않게 된다.(p.287.)

(8) 격식이 있는 가정에서는 젊은 부부가 결혼할 때 ‘마쿠라소시(枕草紙: 일종의 춘화(春畵)채)’와 갖가지 자세를 상세하게 그린 두루마리를 준다. 한 일본인이 말한 것처럼 “책을 보고 배울 수 있다...중략...책을 보고 배우는 것으로서 성행위와 정원 만들기를 결부시킨 것이 흥미롭다(pp.299-300.)

(9) 국화는 철사 고리를 떼어 버리고, 것처럼 철저한 손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게 피어 자랑스러울 수 있다.(p.312.)

(10) 일본인은 두세 가지의 오랜 전통적 덕에 의지하여 평행을 잃지 않고 무사히 거센 파도를 넘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그들이 ‘몸에서 나온 녹’은 그들 자신이 처리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자기 책임의 태도이다. 이 비유는 자신의 신체와 칼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칼을 찬 인간에게 칼이 녹슬지 않고 번쩍이게 할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각자 자기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 지속성의 결여, 실패 등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를 승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p.312.)

루스 베네딕트(1996)는 일본인의 습성을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모든 일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그것은 문서나 계획도(지도)로 만들어 그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안심하는 민족이라 소개하였다(심지어 격식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부부관계를 하는 여러 자세가 실질적으로 그려진 그림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본인의 매뉴얼화 정도를 추측할 수 있겠다.).

또 한명의 저명한 일본인론자 이어령(1982)은 일본의 축소지향적인 습성들을 예를 들어 베네딕트가 논의한 매뉴얼화 된 일본인의 생활습성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1982: 144).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러운 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특히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을 축소하여 집안으로(정원, 분재, 꽃꽂이, 병풍 등), 큰 물건을 작게

축소하여 소지할 수 있도록(워크맨, 월부채 등)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들 또한 불필요한 행동을 제거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인위적인 방법, 즉 자연을 “깎고, 생략하고, 쓸고, 씻고, 털고, 자르고, 벗기고, 응집시켜”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습성인 것이다.

일본인의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태도는 위생의식에서 잘 나타난다. 이어령은 다음의 두 예를 통해 일본인의 위생의식을 소개한다.

일본인은 세계에서든 깨끗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중략...사무라이(武士)가 항상 칼을 차고 있듯이 일본의 여인들은 또 빗자루를 잠시도 떼놓지 않는다. 쓸고, 씻고, 털고, 닦는 일본의 생활은 먼지와 전쟁이다. 일본인은 필요 없는 것과 함께 있지 못하는 체질이어서 가지런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그냥 남아 덩구는 것을 보면 견디질 못한다. 티끌 만한 먼지가 있어도 심지어 보이지 않는 구석에 묻어 있는 먼지가 있어도 혀로 핥듯이 떨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먼지를 허용하지 않는 문화이다. 그래서 자연은 언제나 진공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p.146.)

실제로 옛날 일본에서는 다이묘(제후)의 밥에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요리사에게 할복을 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덕이 있는 다이묘는 밥을 먹다가 티가 있으면 몰래 다다미 틈새에 밀어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정도의 엄벌을 내린 것은 생명을 걸고 정성을 다해 요리를 만들라는 의미일 것이다...중략...거기서 생겨난 방법이 음식을 먹을 사람 앞에서 만들게 하는 방식이다. 아무리 게으르고 성의 없는 사람도 보는 사람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되면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먹는 사람도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면 음식 이상의 맛을 느낀다. (pp.226-227.)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 불결함으로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소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예측 가능할 수 있고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일본인의 전통적인 문화습성을 확인 할 수 있다.

2.2.2. 한국인의 전통 문화 고찰

조혜인(1998: 133)은 현재의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유교 성리학의 유산으로 간주하고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의 지식관에 대해 특권주의적 신분의 “보상과 의무의 문제”로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정근하, 2014:a pp.362-365 재인용)

유교에서 지식을 인격의 불가분의 일부로 보고 “배운 사람”을 존경하려는 지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거제도가 발전하여 독서계층이 전반적인 엘리트계층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신분 주의적 지식관으로 구현되었다. 유교적 지식을 습득한 선비를 과거고시로 추려내어 그 일부는 국가의 관리로, 그리고 나머지는 “향촌” 사회의 지도자로 삼는 보편적 엘리트 구조가 확립된 조선시대(1392-1910)에서였으므로 (한영우, 1983) 신분 주의적 지식관도 대체로 그 무렵에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Cho, 1998), 지식을 인격과 결부시키는 세계관이 신분 주의적 지식관으로 구현되는 것은 이렇듯 사회 속에 그에 상응하는 계층체계가 자리 잡을 때이다. (p.133.)

현재의 특권 주의적 지식관이 유교의 인격적 지식관에서 발달한 신분 주의적 지식관이 변질된 것이라는 말은 기저에서 그러한 인격적 지식관에 뿌리를 박고 기생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많이 알수록 그만큼 더 훌륭한 인격이라는 생각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많이 아는 사람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사람은 “당연히”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여겨버리는 것이다(조혜인 1995a). 여기서 “당연히”가 없다면 신분 지향적 지식관 자체의 표현이 된다. (pp.142-143.)

조혜인은 조선시대의 지식관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지위와 특권, 그리고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시대상을 폭로하고 있다. 조혜인과 함께, 강창동(1996: 209-227)은 한국 교육열의 사회화 특성연구에서 한국의 “효 사상”을 예로 들며, 왜 조선 사람들이 과거시험에 전 인생을 걸었고, 송문주의 전통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유교의 “효 사상” 언급하였다. 즉 자녀가 과거급제를 함으로써 입신(立身)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효의 끝”이라 지적하였고, 과거급제를 위해 조선사회에서는 문중에서 재능이 있는 자가 있으면 가문 중심의 집단적인 교육투자를 서슴치 않았음은 물론, 미약한 가문출신이라도 과거에 합격하면 가문전체가 일시에 사회적 명예와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전 인생을 투자할 수 있었다고 당시의 시대상을 폭로하였다. 또한 과거급제라는 우리사회가 바라마지 않는 문(文)으로서의 신분상승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출세방법 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어서도 변함이 없었고, 영어교육에서 그대로 재연되었다.

1880년대 구한말 때의 영어교육의 목적은 단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역관양성이었지 연구라든지 교양, 실용성에 가치를 둔 대중적인 교육은 아니었다(석희선, 1993: 90; 이복희·여도수, 2001: 390). 즉 서양의 과학과 학문, 그리고 선진문물을 수용하는데 영어는 절대적인 도구였고, 당시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영어는 국제어의 구실을 했음은 물론 영어로 말을 한다는 것은 출세를 의미했다는 점에 방점이 있었다. 당시 영어를 대하는 조선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아펜젤러는 “Ask a Korean ‘why do you wish to study English?’ and his invariable answer will ‘be to get rank.”였다고 지적했다(문용, 1982: 13). 이종배(1978: 13)와 석희선(1993, 92)의 연구에서도 구한말 영어를 배우던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 “너무 공리적이어서 취업이나 출세만을 바라고 그 짧은 수 학연한이나마 끝내 학업에 정진하지 않았고, 더구나 육영공원의 학생들은 대부분 태만 그 자체였다. 영어를 통한 선교의 목적도 근대화의 달성이란 목적도 모두 출세라는 세속적인 관심사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언더우드(Underwood 1926: 237-238) 또한 당시의 영어교육에 대해 “영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이 좋은 선생이 아니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퍼즐, 트릭 같은 문제를 잘 풀어주는 선생과 이를 잘 암기한 학생이 모범생이었다.”고 지적했다. 백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바람직하고 칭찬 받을 만한 출세 방법은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하는 것이고,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를 꼭 짚어주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라는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내면에 내재된 교육에 대한 전통적 문화습성이다.

3.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한 1, 2차 조사결과와 논의

한일 양국민은 필리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清水1996; 武田, 2005; 菊地, 2007; 早瀬, 2012; 임성택, 2003; 유승무 외, 2006; 노경란·방희정, 2008; 이종일, 2012; 유재현, 2014) 양국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해외 연수지 TOP 10에 아이러니하게도 필리핀이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에서 공부중인 양

국 유학생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고, 재방문 계획은 있는지, 친구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필리핀 연수가 3개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3.1. 일본인 유학생들의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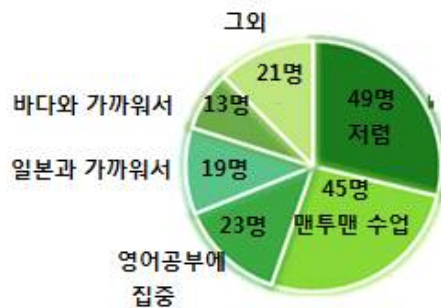
다음 <표 5>는 『Cebu pot』의 조사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표 5> 『Cebu pot』의 설문 조사결과

희망 체류기간	1개월	1~3개월	3~6개월	6~12개월
수	62명	79명	35명	13명
연수 만족도	만족	대략 만족	대략 불만	불만
수	95명	79명	11명	4명
재입국 여부	또 오고 싶다.	다른 곳에 간다.	다시는 안 온다.	무응답
수	96명	68명	19명	6명

『Cebu pot』가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일본인에게 필리핀은 장기 유학지가 아니었다. 조사대상자 189명 중 141명(75%)이 3개월 미만의 단기연수로 필리핀에 왔고, 35명(19%)이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은 13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한 만족 감은 대단한 높게 나타났다.

<표 6> 필리핀 어학연수를 선택한 이유 조사



대상자의 50%(95명)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대답했고, 대략만족이 42%(79명)로 9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다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오겠다는 질문에 절반이 조금 넘는 51%(95명)만 다시 오고 싶다고 대답했고, 그 외의 반수에 가까운 학생들 46%(87명)이 다른 나라에서 어학연수를 받겠다고

지, 필리핀으로는 다시 오지 않겠다고 대답해 어학연수 만족도와 재입국(재수강)의 상관관계는 일치하지 않아 심층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본인 유학생들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선택한 이유로 저렴한게가 49%(93명)로 가장 많았고, 맨투맨 수업이 있어서가 45%(84명)로 다음을 차지했다.

2017년 현재 필리핀 어학연수의 경우 3개월의 연수비용이 30만엔(3백만원)으로 타 영어권의 어학연수 비용에 비해 저렴하다⁵⁾. 특히 다른 영어권 국가들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 어학연수의 경우 필리핀 어학연수 비용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홍보 되고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를 비교하여 비용으로 환산하면 필리핀 어학연수가 어느 영어권 국가들보다 월등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방 청소, 빨래, 식사를 해주는 아떼(헬퍼)가 상시 대기하며 모닝콜까지 해준다. 기숙사와 학원이 같이 있어 교통비가 들지 않는 반면 캐나다 어학연수는 학비는 비슷하나 수업시간이 6시간미만, 홈스테이 비용과 교통비가 따로 소요됨으로 어학연수 비용이 엇비슷하다는 말은 호응하기 힘들다. 일본인 유학생들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면서 느끼는 NG Point에 대해 『Cebu pot』는 빈도수를 적시하지 않은 채 내용만을 열거했다.

일본인 너무 많다(일본인이 너무 많아 결국 일본어로 대화한다). 선생님들의 실력이 균일하지 않다.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왕초보는 건디기 힘들다. 길, 화장실, 배기가스, 수도, 전기설비 등이 건디기 힘들 정도로 나쁘다. 길 걷기가 무섭다. 그 외,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다. 필리핀 영어는 쉽게 들린다(원어민을 만나면 알아듣지 못함). 필리핀에서만 할 수 있는 특이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후진국이라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슈퍼의 계산속도가 느리다. (p.63).

연구자가 직접 만난 대부분의 일본인 유학생들은 필리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선입견들을 현실에서 맞닥뜨리면 “여기

5) 타 영어 사용국 보다 어학연수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경우 한 달 수업료와 홈스테이라든지, 방을 빌리는 경우를 합하여 평균 235만원 정도의 유학비용이 필요하다. 다음 표는 각국에서 3개월간 소요되는 평균 연수 비용이다. キャリアバイト編集部(2016/2/1),“英語での短期語学留学するならどこ? 8ヶ国を徹底比較してみた. <https://careerbaito.com/column/detail/872> (검색일: 2017.11.09)

<표 7> 일본인이 자주 찾는 어학연수지 8개국의 3개월간 비용 비교

USA	CAN	UK	AUS	NZL	SNG	PHL	FJI
¥600,000	¥400,000	¥500,000	¥400,000	¥400,000	¥300,000	¥300,000	¥300,000

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포기하거나 체념해야하며 결국 빨리 필리핀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3.2. 한국인 유학생들의 조사결과

<표 9> 필리핀 유학을 선택한 이유



한국인 유학생들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선택한 이유, 만족도, 그리고 추천할 의지 등에 대해 연구자는 총 27명(남자: 17명, 여자: 10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10>에 정리 하였다.

<표 10> 한국인 유학생들의 조사결과(조사는 필리핀, 캐나다에서 조사함)

체류기간	1~3개월	3~6개월	6~12개월	고교/대학 졸업 때까지
남자	9명	4명	-	2명/2명
여자	7명	3명	-	-
만족도	만족	대략만족	대략불만	불만
남자	2명	6명	6명	3명
여자	-	3명	3명	4명
필리핀 연수 추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무응답	
남자	4명	9명	4명	
여자	3명	7명	-	
왜 필리핀에 왔나	저렴해서	소개 받아서	부모님 권유	그외
남자	10명	3명	3명	1명
여자	7명	2명	1명	-
힘든 점	선생님 발음	선생님 실력차	음식, 문화	치안/그외
남자	13명	12명	3명	4명/5명
여자	8명	7명	7명	8명/5명
필리핀의 장점	1:1수업	가격이 저렴	영어로 생활	선생님이 친절하다
남자	13명	10명	12명	6명
여자	6명	8명	5명	3명

한국인 유학생들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60%(17명)가 연수 비용이 타 지역보다 저렴하기 때문이었고, 19%(5명)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15%(4명)는 부모가 가라고해서 왔다고 대답했다.

한일 양국 유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학연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었다. 대부분의 일본인 유학생들은 유학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거나, 부족한 비용을 부모에게 빌리고 있었다. 여대생 5명, 고등학생 2명을 제외한 28명이 스스로 유학비용을 부담한 반면, 한국인 유학생들은 부모가 유학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한국인 유학생 30~40대 사회인 6명(남:5명, 여:1명)을 제외한 21명(30대 남녀 각각 2명과 3명 포함)이 부모님께 연수비용을 의존하고 있었고, 특히 2명의 남자 대학생과 30대 초반의 2명의 남녀 취준생들은 부모가 어학연수를 권해서 필리핀에 온 경우였다. 이것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의 대소사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늦은 나이까지 독립하지 못하는 한국 청년층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국인 유학생들의 필리핀 체류기간은 3개월이 70%(19명)로 가장 많았고, 4개월이 26%(7명), 6개월이 0,07%(2명)차지고 있었다(필리핀의 고교나 대학 재학생, 즉 가족 전체가 필리핀으로 생활거점을 옮긴 경우는 예외). 그렇다면 한국인 유학생들은 필리핀 어학연수에 만족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41%; 11명)보다 부정적인 대답이(59%; 16명) 더 많았고, 친구들에게 필리핀 어학연수를 추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26%(7명)가 추천할 수 있다고 대답한 반면, 60%(16명)는 추천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해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였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느끼는 필리핀 어학연수의 NG Point와 필리핀 연수가 3개월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인들은 식사문제나 위생 문제보다는 필리핀 선생님들의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필리핀 영어를 폄훼하는 한국내 분위기, 즉 내부원국가(inner circle)의 브랜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투리 ‘2~3류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한일 양국 유학생들의 사회문화적 특성 분석

3.3.1. 필리핀 어학연수가 3개월로 충분한 이유(일본인 유학생)

일본인 유학생들에게 필리핀에 온 이후 ‘체념하거나 포기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다.

Toko(26살, 세부, 테니스 강사, 3달 계약, 여): 2016년4월9일, 헬스클럽

영어는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준이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수업이 제 발음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불만은 없어요. 하지만 필리핀 조리사가 해주는 식사나, 사먹는 필리핀 음식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아시겠지만 필리핀 음식에는 채소가 거의 없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키가 작고 수명이 짧은 이유는 채소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 스타벅스에 가서 아이스커피를 시켜보시면, 필리핀 사람들이 얼마나 상식이 없는지 아실 거예요. 모든 커피는 내리는 방법이 있고,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스턴트커피를 타듯이 뜨거운 물로 커피가루를 녹이고 대량의 얼음을 넣고 그것을 “아이스커피”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커피 값을 치르고 커피를 만든 점원에게 많이 마시라고 하고 나와 버렸어요.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늘 신경을 거슬러서, 3개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요.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라 생각해요. 또 느슨한 습관이 몸에 베면 일본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즈사(28살, 세부, 사회인, 3달 계약, 여): 2016년4월14일, W어학원

일본 식당은 주문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손님이 전부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바비큐나 그릴 요리 외에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없어 위생적인지 늘 신경이 쓰여요. 몇 일전 선생님이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자고 권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전을 했었는데 장사하는 아저씨가 노상방뇨를 하다가 손님을 보더니 손도 씻지 않고 그대로 달려와 음식을 건네주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먹을 수 없었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받아먹더라고요. 선생님부터 위생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일본인 가게 이외에는 가지 않아요. 필리핀 남자들은 아무데서나 방뇨를 해요. 여기는 열대성 기후라 비가 오면 거의 폭우 수준으로 발목까지 물이 차는데 오줌물이 제 몸에 닿는다고 생각하니 비만 오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 화장실은 화장지가 없고 물통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화장지를 사서 쓰라는 것으로 이해했었죠. 그런데 수업시간에 일본, 한국 사람들은 왜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쓰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선생님이 하셔서 너무 놀랐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뒤처리를 손으로 하고, 손을 씻는다고 하더군요. 화장실의 비누가 그런 용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비누 만지기도 싫어졌고, 선생님들이 손잡는 행동도 신경이 쓰여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3달 이상 살면 아마 피부병, 장염에 걸려서 오래 못살 거예요. 저기 지푸니(미니버스)가 뺏는 매연을 좀 보세요. 저렴해서 왔지만, 포기할 수준을 넘어선 문제들이 많아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로(21살, 마닐라, 대학생, 3달 계약, 남): 2017년3월7일, G어학원

선생님이 가끔 바나나큐라는 간식을 가지고 오시는데 몰랐을 때는 먹었죠. 지난 주말에 선생님이 저를 집에 초대해서 선생님 집에 갔는데 집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화장실 설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선생님이 집에 있는데도 이웃 집 사람들이 집 뒤쪽에서 방뇨를 하더라고요. 집에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는 집을 잘못 지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오줌으로 습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불쾌했어요. 선생님은 자주 기침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집 곰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하루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변명을 하고 기숙사로 돌아와 버렸죠. 저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이나 한국인 레스토랑 이외에는 절대 안갑니다. 여기에 오래 있으면 심신이 다 병에 걸릴 것 같아 3개월만 계약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다다시(29살, 바기오 경유, 회사원, 남) (2016년8월19일, 밴쿠버 I.어학원)

난생 처음 식중독에 걸렸어요. 친구가 말린 오징어를 사와서 구워 먹었는데 늦은 밤부터 친구와 저는 복통에 설사를 했어요. 굉장히 짰는데... 월요일 수업을 받기가 힘들어 친구와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이라고 했어요. 필리핀에서는 말린 어패류도 씻어서 요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어떤가요? 말린 것을 씻어서 먹나요? 학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여기는 일본도, 한국도 아니니 모든 것에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해 주셨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의를 해야 하는지 정말 큰 문화적 격차를 느낀 사건이었어요. 다른 어학원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다니던 어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발행일이 1997년이더군요. 아무리 언어가 변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걸 해도 너무했어요. 식중독 걸리고 수업이 후진적이어서 2달도 못 채우고 밴쿠버에 왔어요. 필리핀은 최악이었어요.

일본인 유학생들이 필리핀 어학연수 기간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NG Point는 필리핀 사회의 식문화와 일상에서의 위생의식에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위생의식이 의심되는 필리핀 조리사가 기숙사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음식의 위생에 강한 의심을 품었다. 필리핀의 어학원의 일상은 학원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며 식사 또한 기숙사의 스케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기호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정전과 단수 문제, 근교 필리핀 사람들의 무분별한 ‘고성방가에 따른 소음’, ‘무질서’ 등 필리핀 문화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표 8> 일본인 유학생들이 말하는 필리핀 어학연수의 NG Point(복수 의견 제시)

식사문제	위생문제	정진, 단수	무질서	치안문제
29명	27명	26명	23명	13명
영양 밸런스가 무시된 식단, 맛없음. 필리핀 주리사. 매뉴얼 없음.	위생의식 없음, 배기가스, 노상 방뇨, 화장실 화장지 미사용, 거리의 악취.	에어컨 고장, 정진, 화장실 단수, 욕실 사용 제한 등.	고성방가, 늘 따라붙는 아이들, 느슨한 시간의식. 바가지요금.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 무서움, 필리핀 사람들이 자꾸 쳐다 봄.

다음은 필리핀을 경유한 일본인 유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Toko(26살, 테니스 강사, 세부 경유 호주, 여): 16년5월21일, Line 메신저

호주 골드코스트로 왔는데 필리핀과는 참 다르네요. 처음 한 달은 홈스테이를 했어요. 아침, 저녁이 제공되는데 아침은 씨리얼, 점심은 어학원 근처에서 해결을 했고, 저녁은 홈스테이 가족과 식사를 같이해요. 이 가족은 전형적인 서양인으로 양식만 해 드세요. 미소시루라든지 일식이 너무 그립습니다. 호주의 집들은 대부분이 목조여서 벌레가 참 많아요. 필리핀 기숙사에는 개미만 나왔는데 여기는 큰 거미, 뱀도 봤어요. 위생적인 면, 치안 등은 필리핀과 비교할 바가 아니죠. 필리핀에서는 식재료의 위생까지 의심스러웠는데, 여기는 음식이 전부 양식이라는 점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을 따로 빌려서 생활하고 있고, 직접 음식을 해 먹고 있어요. 신선한 재료와 칼로리를 계산해서 음식을 해 먹으니 마음이 참 편해요. 수업은 필리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한 교실에 무려 16명이 수업을 받고 있어 발언기회가 없어요. 선생님이 발언기회를 줘야 겨우 대답하는 일본인과 달리 다른 나라 친구들은 영어가 금방 느는 것 같아요. 호주 네이티브 선생님께 영어를 배우고 있어 좋은데 일대일 수업이 그리워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유키(26살, 회사원, 세부 경유 밴쿠버, 남): 16년5월22일, Line 메신저

캐나다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필리핀 어학연수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 지식수준, 일반인들의 위생의식, 시간개념 등이 너무 느슨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밴쿠버는 생각했던 것처럼 대단히 깨끗한 곳이고 시간개념이 일본인과 비슷해서 마음의 참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 홈스테이 맘이 필리핀 사람이라서 집을 옮길 생각이예요. 아침은 씨리얼과 식빵을 제공해 주고, 점심은 날마다 샌드위치를 싸서 주시고, 저녁은 일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일식을 만들어 주는데 국적을 알 수 없는 맛이에요. 룸쉐어를 하려고요. 한 달에 8백 달러를 내

고 홈스테이 하고 있는데 방 쉐어를 하면 월 5백 달러에 먹고 싶은 것을 직접 만들어 먹거나 사먹을 수 있어 이것이 나은 것 같아요. 필리핀과 비교하면 여기는 완전히 힘들죠. 빨래, 청소, 가사를 제가 직접 해야 하고, 샤워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제약이 많아요. 수업도 12~15명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시간이 정말 시끄럽지만 여기는 제가 모르는 서양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매력이 있어요.

유카(28살, 간호원, 바기오 경유, 여): 16년9월20일, 밴쿠버 I어학원

필리핀과는 너무 다르죠. 처음 한 달은 필리핀 사람의 홈스테이를 했어요. 식사로 아침은 시리얼, 점심은 샌드위치, 저녁은 한식, 일식, 양식, 멕시칸 등 다양하게 나왔어요. 집 주인이 필리핀 사람들이어서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여기에 오래 계셔서 현지 사람들과는 위생의식이 달랐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만들어 주는 일식은 전혀 일식이 아니에요. 결국 저는 어학원 일본인 친구들과 방을 빌려 생활하고 있어요. 친구와 돌아가며 새로운 레시피로 음식을 하고 있어 공부도 되고. 수업은 필리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반에 학생이 무려 16명이나 돼서 발언할 기회가 없어요. 일본인들만 영어가 안 느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이티브 선생님, 서양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꿈만 같아요. 필리핀에서는 서양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는 모든 면에서 질서가 잡혀 있어 안심이 되요. 아쉬운 점은 비용이 필리핀보다 훨씬 높는데 아페(헬퍼)도 없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하니 좀 불편해요. 일대일 수업을 하던 필리핀의 수업의 질이 높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밖에 나가면 늘 신경을 써야해서 힘들었어요.

노기와(22살, 휴학, 세부 경유, 여자): 2016년8월19일, 밴쿠버 I어학원

음식에 채소가 없고, 위생의식이 남달라서 3개월도 못 채우고 캐나다에 왔어요. 여기는 깨끗해서 맘에 들어요. 근데 하필 처음 만난 홈스테이가 필리핀 사람이어서 첫 달만 거기에 있다가 일본인들이 룸쉐어 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3식 모두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칼로리를 계산해서 음식을 만들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룸쉐어 하는 사람들이 다 일본인이라서 서로 간섭하지 않아서 지내기 편해요.

일본인들은 호주와 캐나다로 옮긴 이후에도 식사문제로 고민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이라는 점에서 만족을 표하고 있다.

일본인의 전통적인 문화습성 즉 매뉴얼화(루스 베네딕트, 1996)되어 있어 예측이 가능해야 안심하는 문화습성과 고도로 발전된 위생 문화습성(이어령,

1982)이 그렇지 않은 문화와 충돌하자 유학생들은 어학연수의 근본적인 목표가 바뀌었다. 즉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매뉴얼)을 볼 수 없고, 칼로리와 영양 밸런스가 계산되지 않고 제공되는 음식, 노상방뇨, 고성방가, 무질서, 느슨한 시간관념이 일상화된 필리핀 문화가 일본인의 전통적 문화습성과 부딪치자 일본인 유학생들은 어학연수의 본질인 영어 능력향상이라는 애초의 목표에서 “건강하게 귀국하자”로 바뀌었다. 이들이 말하는 3개월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한계 기간이었던 것이다.

3.3.2. 필리핀 어학연수가 3개월로 충분한 이유(한국인 유학생)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필리핀 어학연수에 와서 느끼고 있는 NG point는 무엇인지 물어 보았다.

전○○(25살, 지방대, 휴학, 세부, 남자): 2016년4월12일, 세부 헬스장

저는 영어를 거의 모르고 왔지만 고등학교 때 영국에서 오신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했어요. 그냥 영어에 흥미가 없었죠. 군대 재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친구들이 다들 어학연수를 하고 왔더라고요. 모두들 한마디씩 영어를 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 필리핀에 왔는데, 선생님들 억양하고 발음이 완전히 짱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YouTube를 보다가 필리핀 선생님들 발음 들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자기들은 슬랭을 안 쓰기 때문에 미국 영어와 다르게 들리는 것뿐이라고 변명 하지만, 제가 귀가 없나요? 다른 건 다른 거죠. 필리핀 선생님들 발음은 완전 짱이에요.

최○○(23살, 지방대, 휴학, 세부, 여자): 2016년6월5일, 세부 W어학원

영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세부에 왔어요. 요즘 영어로 친구들에게 말하면 “야 너 완전 필리핀 사람 같애! 발음이 왜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미국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했다고 절대 말 하지마. 그냥 독학했다고 해! 그게 더 나!”라고 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일대일로 종일 영어로 말 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제 영어를 아니라고 하니... 필리핀 영어에 길들여지기 전에 떠나야 해요.

장○○(33살, 조선소 퇴사, 마닐라, 남자): 2017년4월12일, 마닐라 G어학원

여기서 두 달을 공부하고 쉬는 날 스킨스쿠버 하러 바다에 갔는데 백인들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필리핀 선생님들 말은 대충 알아듣지만, 원어민이 말을 하자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갑자기 캐나다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속이 얼마나 상하든지. 2개월 동안 필리핀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고 감사까지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고생해서 번 돈을 유익하게 사용하려고 여기에 왔는데 원어

민 말이 전혀 안 들려서 너무 실망했어요. 어학원 선생님을 하려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써야지 이걸 아닌 것 같아요.

노라(38살, 미혼, 마닐라 경유, 여자): 2016년10월12일, 밴쿠버 I어학원

이 사람이 필리핀 영어도 괜찮다고 해서 돈 아끼려고 필리핀에 갔었죠. 일상 대화는 되는데 토익점수가 좀 낮아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려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 대학이 우리나라 전문대 수준이잖아요. 선생님이 한국의 어린 학생들, 대학생들만 상대하다보니 모두 주입식으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가끔 컴퓨터 프로그램, 세계사, 상식 등의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해요. 하루에 6명의 선생님을 만나는데 선생님들 모두 한 달에 책 한권도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교과서도 1990년대 책으로 수업을 해요. 교과서에 전화번호부 이야기가 나오질 않나, 한 달 있다가 짐 싸서 여기에 왔죠. 필리핀은 은퇴 후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 유학생들이 느끼는 필리핀 어학연수의 NG Point,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생님들의 발음, 억양, 수업의 질, 필리핀 영어에 대한 국내의 낮은 평가’로 어학연수의 본질인 영어실력 향상과 직결된 내용들 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필리핀에서 느끼는 NG Point가 내부원국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내부원국가에서 유학을 하든,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든 한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영어실력 향상, 즉 영어실력을 단순히 올려줄 수 있는 선생님의 여부, 수업환경의 질이 결국 좋은 유학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던 것이다.

변○○(25 살, 휴학, 세부 경유, 남자): 2016년10월21일, 밴쿠버 I.어학원

필리핀 선생님들 발음이나 억양이 달라서 너무 싫었는데, 캐나다에 와 보니 제 영어 실력이 늘어 있었어요. 제 클래스에는 항상 13명 정도의 학생들이 출석을 하는데 서양애들이 너무 시끄럽고 말이 많아 제가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 애들은 내가 말하고 있어도 끼어들어요. 여기에 와서 영어로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해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필리핀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대일 수업에서 말을 했었는데. 물론 여기는 원어민들이라서 안심이 되지만, 여기 선생님들은 잘하는 사람들만 잘 대해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필리핀에 다시 가서 공부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31살, 퇴사, 바기오 경유, 남자): 2016년10월21일, 밴쿠버 I어학원

캐나다에 와서 보니 사람들이 개인주의예요. 같은 어학원 다니면서 아침에 깨워주지도 않고, 학교 안 간다고 말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필리핀에서는 아메가 항상 깨워주고 밥도 차

려줬는데 여기는 알람을 3개정도 해 놔야 겨우 깨어나니...수업도 14명이 같이 듣다보니 집중도 안 되고, 뒤처지는 느낌만 받아요. 필리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체크를 해 주는데 여기는 잘 하는 사람들만 신경을 써줘요. 일대일 수업하러 필리핀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캐나다에 오면 원어민 선생님들이 금방 영어실력을 늘려 줄 것이라는 기대 했는데.. 캐나다든 필리핀이든 영어는 자기하기 나름이란 걸 알았어요.

노라(38살, 미혼, 마닐라 경유, 여자): 2016년10월12일, 밴쿠버 I어학원

캐나다라고 해서 기대가 컸을까요? 여기에 와서 느낀 사실은 영어실력은 단순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 필리핀 선생들이 말하는 영어문법이나, 캐나다 선생이 말하는 영어문법이 똑같았다는 사실에 한 대 맞은 느낌. 물론 시설, 주위환경, 생활수준이 다르지만 캐나다 선생님이니까 내 영어실력을 금방 올려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필리핀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못할 것이라는 무시하는 태도를 저부터 가지고 있었다고요. 중요한 건 그 언어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에 있지,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든지, 지역이 어디냐를 따지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실력을 단순히 올려줄 선생님이 있는 곳, 진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 즉 내부원국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원했다. 그러나 내부원국가라 할지라도 영어실력을 단순히 올려주지 못하거나, 수업환경, 수업의 질이 좋지 않으면 한국사람들은 NG point로 인식했다. 이것은 100여 년 전 우리선조들의 영어를 대하는 태도, 즉 단순히 시험에 합격해서 통역관이 되게 해 줄 수 있는 선생님-시험에 나올만한 트릭과 같은 문제들을 잘 짚어주고 풀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는 기대와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우리선조들의 태도가 지금의 한국 유학생들에게서 그대로 재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유학생들은 식사문제나 위생문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최○○(22살, 지방대, 휴학, 세부, 여자): 2016년4월12일, 세부 헬스장

저희 어학원은 시내에 있어 식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맛있는 밥을 먹고는 있지만 요즘은 한국음식이 배달이 되거든요. 한국식당에 전화하고 경비실에 말해 두면 배달원이 20분 안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아침, 점심은 그냥 대충 먹고, 저녁때는 시켜서 먹던지 주말에 한국가게에서 밑반찬 좀 사놓고 먹어요. 필리핀에서 뭘 바라죠? 돈 없어 왔으니 상황에 맞춰야죠.

김○○(21살, 지방대, 휴학, 마닐라, 남자): 2017년5월4일, 마닐라 헬스장

마닐라에서 한국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참 다행이에요. 한국인 가게가 없었다면 힘들었겠죠. 입맛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저녁에 아떼(헬퍼)에게 한국 라면 좀 주고 끓여달라고 하면 해줘요. 아떼(헬퍼)들이 한국 요리를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고. 필리핀에 와서 한국 수준의 위생, 기술, 문화를 기대하는 건 무리죠.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필리핀이에요.

서○○(26 살, 휴학, 밴쿠버, 남): 2016년10월21일, 밴쿠버 I어학원

캐나다에 온 이후 매일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이 나라가 왜 선진국인지 정말 이해가 안돼요. 저는 중국인 홈스테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식으로 식사를 하고 저희에게는 거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도록 주방을 개방을 해 놔서 홈스테이 밥 먹기 싫으면 라면 끓여서 먹든지, 엄마가 보내준 반찬이랑 같이 먹고 있어서 식사는 그럭저럭 해결하고 있어요. 샌드위치 사진을 엄마한테 보냈더니 엄마가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홈스테이를 옮길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친구들도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내기로 했어요. 어차피 6개월도 안 있을 건데 상황에 맞춰야죠.

스텔라(27 살, 취준생, 밴쿠버, 여): 2016년10월21일, 밴쿠버 I어학원

저는 캐나다 사람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3식 모두 서양식을 먹고 있는데, 여긴 완전히 제 입맛하고는 다른 곳이었어요. 제가 양식을 좋아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을 먹어보니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아침은 우유, 점심은 맨날 똑같은 샌드위치, 저녁은 짬장, 된장, 고추장 없이 먹는 스테이크와 감자...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제가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음식 간도 못 맞춰서 밖에 나가 사는 것이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맞춰서 살려고요. 밖에 나가면 한국음식 쉽게 구해지니까. 6개월간 눈 딱 감고 원어민하고 생활해 보려고요.

일본인 유학생들이 필리핀에서 음식문제로 고생하는 동안 한국인 유학생들은 상황에 맞춰서(한국 식재료나 밑반찬을 구입해 해결) 생활하고 있었지만 한국인 유학생들도 캐나다의 홈스테이에서는 식사문제로 고민을 했다. 그러나 역시 한국인 유학생들은 필리핀에서든 캐나다에서든 상황에 맞춰서 생활을 했다. 즉 부모님에게 밑반찬을 받아 생활하든지 한국식품을 사든지 함으로써 식사문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합리적인 행동패턴은 필리핀에서나 내부원국가에서나 똑같이 확인할 수 있었던 한국인들의 습성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인 유학생들은 왜 내부원국가로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인의 문화습성에 “허례허식”, 즉 브랜드를 의식하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⁶⁾(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결국 명품 백을 사는 행위 등).

처음부터 내부원국가로 어학연수를 갔거나, 필리핀 어학연수만 경험한 유학생이라면 필리핀 어학연수를 폄훼하는 태도를 견지했을 것이나, 필리핀을 경유해서 내부원국가로 이동한 유학생들은 대부분이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인들의 필리핀에 대한 비.

김○○원장(50대, 세부, S어학원, 남): 2016년6월19일, 세부 한인교회

저희 어학원에는 한국 중·고·대학생들이 오는데 처음에는 필리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놀 곳도 없고, 때 지어 다니는 거지 아이들, 매연 지푸니, 시커먼 피부 등. 게다가 집에서 히드렛일을 하는 아떼를 보면서 선생님까지 몸종 취급하며 이것 저것을 명령을 하는 등 무례하기가 한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로 그만두고 문체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돌아온 필리핀 사람을 적극 영입했고, 그 선생님들이 필리핀 영어에 대해 솔직하게 말을 해주더군요. 일반인들의 영어는 악센트가 강하고, 사용하는 단어도 차이가 있다고.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 때문에 고생하거나 필리핀 영어를 이상하게 여기는 외국인들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이상 계약 한 사람들 중 성적과 수업태도가 좋은 학생들을 골라 2주간 호주나, 캐나다에 다녀오는 옵션을 시도했어요. 물론 손해가 있지만 학원의 미래를 위한 투자죠. 그 친구들이 돌아오면 필리핀의 영어 학습 환경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확실히 깨닫고 옵니다. 그 친구들이 필리핀 영어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면 그 기수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필리핀 어학연수가 3개월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필리핀의 영어가 브랜드 영어가 아닌 '2~3류 영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었다.

4. 나가기

한일 양국의 유학생들은 다른 나라로 이동하더라도 자국의 전통적인 문화습성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타국 문화를 불편하게 느꼈다. 이것은 자국 문화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충실히 체득한 자연스러운 결과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100년 전 아니 그 이전의 전통적 문화습성에 기초하고 있다

6)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793392>, 「아시아투데이」, '명품 천국' 한국...1인당 평균 9개 보유. 2013.4.10.(검색일: 2018.05.14)

는 점에서 문화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즉 한 나라의 문화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설, 문화습성이란 개인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문화가 그 지역에 내재되고 지속됨을 보여준 연구이다.

먼저 한국 유학생들의 어학연수의 목적은 영어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 외의 사항들은 상황에 맞추어 생활하는 매우 합리적인 행동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단시일에 학습 성과를 올리려는 태도와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선생님 혹은 학습 환경에 달려 있다고 여기는 학습태도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Underwood 1926: 237-238)가 130년 전에 지적한 우리 선조들의 학습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인 유학생들의 필리핀 어학연수가 3개월로 적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의 발음, 억양, 수업의 질, 필리핀 영어에 대한 국내의 낮은 평가”와 같은 영어실력 향상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서 불만을 표출하였고, 이 같은 불만이 내부원국가에서도 예외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습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문화습성이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재연됨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고도로 발달한 그들의 위생의식, 발달된 과학과 매뉴얼의식은 결국 음식을 눈앞에서 만들어 보여주는 음식문화, 누구나가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 일본인 유학생들은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해 대단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일본인의 전통적인 문화습성 즉 청결하고, 예측 가능하며, 계획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안심하는 매뉴얼화된 시스템이(요리 과정과 영양 밸런스) 갖추어지지 않은 필리핀 사회를 경험하면서 크게 동요한 것이다. 즉 위생의식과 영양 밸런스 감각이 의심되는 필리핀 주방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리한 음식을 대한 대부분의 일본인 유학생들은 머지않아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았고, 게다가 스스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필리핀 어학연수는 결국 3개월이 한계인 유학지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태도는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내부원국가로 이동하더라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전통적 문화습성 또한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재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화결정론적(cultural determinism) 입장에서 양국 유학생들의 행동패턴을 해석한 사례였다. 후속 연구로는 한일 유학생들이 필리핀을 어학연수지로 선택하게 된 사회적인 요인을 분석하며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창동(1996), 「한국 교육열의 사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8(1), pp.209-227
- 노경란·방희정(2008),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국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pp.75-92
- 루스 베네딕트/김윤식·오인석 옮김(1996),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pp.40-312
- 문용(1982), 『한국의 영어교육-지난 100년의 회고와 전망』, 시사영어사, p.13
- 석희선(1993), 「영어교육 역사를 통해서 본 한국과 일본의 현황」 『비교문화논총』 4호, p.90
- 유승무·이태정(2006), 「한국인의 사회 인정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201』 9(2), pp.275-311
- 유재현(2014), 「한국 제국주의의 부끄러운 얼굴」 『황해문화』 83, pp.253-270
- 이복희, 여도수(2001), 「한국의 영어교육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공주영상정보대학논문집』 8, p.390
- 이어령(1982), 『축소지향의 일본인』, (갑연출판사). p.146, pp.226-227
- 이종배(1978), 『구한말의 영어교육과 교수법』 『영어교육』 15, p.13
- 이종일(2012),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인종편견 특성」 『사회과교육연구』 19(4), pp.95-120
- 이형철·정근하(2015), 「사고정지(思考停止) 사회 분석 -일본의 사례로 본 한국사회의 사고정지 실태-」 『일본문화학보』 67, pp.323-346
- 임성택(2003), 「세계시민교육 관점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고정관념 분석」 『교육학연구』 41(3), pp.275-301
- 정근하(2014), 「청년층 무이력 기간 장기화 현상 연구(1) 한국편-한국의 사회문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60, pp.359-385
- 조혜인(1998), 「한국교육 현상 속의 왜곡된 성리학적 유산: 보상과 의무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학연구』 7, pp.123-158
- Underwood, H. H.(1926).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pp.237-238
- Leslie A, White(1949) "The Science of Culture: A Study of Man and Civilization": Grove Press. p.229
- 일본자료-
- Cebu Pot(2016), "セブ島留学の今をしりたいっ!" 『Cebu pot』57.
<http://www.cebupot.com/>.
- 寺見元恵/書評(2013), 「早瀬晋三. 『フィリピン近現代史のなかの日本人—植民地社会の形成と移民・商品』 東京大学出版会, 2012」 『東南アジア研究』 51(1), p150
- 清水展(1996), 「日本におけるフィリピン・イメージ考」 『比較社会文化』 2, pp.15-26
- 武田丈(2005), 『フィリピン人女性エンターテイナーのライフストーリー』 (関西学院大学出版会), p105
- 인터넷 자료-
- 최민지. 2013. "‘명품 천국’ 한국...1인당 평균 9개 보유." 『아시아투데이』 (4/10)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793392>, (검색일: 2018.5.14.)
- 홍민희. 2016. "2016년도 국외 한국인유학생 통계" (11/4).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6473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40103&opType=N>(검색일:2017.11.23).

キャリアバイト編集部(2016),“英語での短期語学留学、するならどこ? 8ヶ国を徹底比較してみた”.(2/1)

<https://careerbaito.com/column/detail/872> (검색일: 201717.11.09).

菊地由香(2007),「フィリピン人女性出稼ぎ労働者と日本—エンターテイナーとしての来日—」『桜美林大学学士論文』.

https://www.obirin.ac.jp/la/ico/images/_04report/2007kikuti.pdf (검색일:2018.10.25).

文部科学省(2017).“(別添2)日本人の海外留学状況(PDF:439KB).”(검색일:2018.12.27).

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_icsFiles/afieldfile/2017/12/27/1345878_02.pdf (검색일: 2018.01.03)

논문 투고 일자 : 2018. 05. 15.

논문 심사 일자 : 2018. 07. 31.

계재 확정 일자 : 2018. 08. 03.

＜要旨＞

フィリピン語学研修における韓日留学生たちの社会文化的な特徴研究

鄭根河

日本人留学生の場合、授業中に必然的に知られるフィリピン人の生活習慣(トイレペーパーを使わないトイレ文化、手で食べる習慣、エキゾチックな食べ物)、その文化で育てられた塾のフィリピン人調理師の料理、衛生意識、低い市民意識から失望し、語学研修の目的が“英語能力の向上”から“健康で帰国できること”と変わっていた。日本人留学生達は自分では何も変えられず、選択の余地も少ないフィリピン語学研修について3ヶ月で充分であると思っていた。

韓国人留学生の場合、食べ物や衛生意識に関してはそれ程気にしていなかった。彼らの目的はまだ“英語能力の向上”であった。彼らはいつもフィリピン人講師の英語の発音、授業の質等に厳しい意見を出していた。特に韓国国内でのフィリピン英語に対する低い評価、つまり、フィリピン英語は内部円国(イギリス、アメリカ、カナダ、豪州)の英語ではなく方言であるという評価からフィリピン語学研修が3ヶ月で充分であると思っていた。

A study on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studying English in the Philippines

Jung, Geun-Ha

This study compared the experiences of Japanese and Korean students learning English in the Philippines. It found that the Japanese students tended to be overwhelmed by cultural differences that affected their focus on learning the language. They expressed discomfort with the Filipino lifestyle (e.g., locals not using toilet tissue, eating with their hands, exotic foods, etc.), inconsistency in the teaching ability of Filipino teachers, and seeming lack of hygienic awareness of Filipino cooks at the dormitory. Overall, the Japanese reported that the Filipino culture they experienced by means of Philippines tourism changed the aim of their language training from “enhancement of English proficiency” to “returning to Japan as a healthy person.” Japanese students cited their inability to control the environment and protect their health as the main reasons they could not stay in the Philippines for longer than three months.

In contrast, the Korean students were more focused on improving their English proficiency and were able to set aside concerns about food or hygiene. They reported concerns about the English pronunciations and inconsistent teaching abilities of the Filipino teachers, especially since Korea considers Filipino English to be peripheral or non-standard English and not of the caliber spoken in the inner circle (United States, England, Canada, and Australia). Korean students cited their concerns about the quality of the English language training as the main reason they could not stay in the Philippines for longer than three months.